



오정자 (송하조경 대표)

송하조경을 찾아서...

남국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섬 제주
제주도에서도 따뜻한 남쪽 서귀포시의 안덕면에 자리한
우리 조경수협회 본회 이사이며 홍가시나무 전문 농원으로
우뚝 선 여성 조경인 오정자 사장의 송하조경을 찾았다.



글 | 사진 : 사진작가 김해웅



반송 전문농원농장

길옆 흐드러진 역사 꽃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가는 95번국도 제주 중산간 지대를 지나는 서부 산업도로는 양편 길옆으로 하얀 갈대꽃이 끝없이 이어지고 바람 많은 제주에서 온통 산천이 갈대밭으로 물결치는 제주의 또 다른 풍광을 맛보면서 달리기를 30여분. 제주 중문 단지를 가기 직전 산방산과 안덕계곡으로 잘 알려진 안덕면 상창리에 위치한 송하조경은 흉가시 붉은 잎들이 초겨울을 불태우고 있었다.

흉가시나무 예찬

새순마다 땃힌 붉은 입술. 질푸른 녹색 몸에서 안개 피듯 솟아난 가냘픈 붉은 가지들. 생일 케익에 꽂아 놓은 촛불처럼 나무에서 솟아난 가지가 아니고 마치 누군가가 만들어서 꽂아 놓은 것처럼 어느 단풍잎보다 더 붉게 사계절 내내 빛을 발하고 어느 꽃잎보다 더 진한 열정을 품은 흉가시나무에 반해서 흉가시 전문 농원으로 키워기에 조경수 업계에서는 이름인 오정자보다 흉가시에 이름 붙여 흥여사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졌으며 지금도 불꽃처럼 피어오르는 흉가시 붉은 잎들만 보면 어느새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평온과 안정을 찾아 젊은 시절로 되돌아간 듯 그렇게 행복 할 수가 없고 새로운 희망과 열정이 솟아난다고 첫 대면부터 흉가시 예찬론을 펴다.

금감(깡깡)과 젊은 새댁

우리나라에 처음 금감을 보급한 사람. 지금은 마치 토마토에 방울토마토처럼 꺾에는 금감이 있어 한입에 쏙 껌질 채로 먹는 흔한 과일이 되었지만 정작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1978년도란다. 20대 젊은 새댁시절 우연히 집안 어른의 친구이신 제일 교포를 만나 무료함도 달래고 취미 겸 부업삼아 일본에서 금감 묘목 6만 본을 구입, 재배·보급한 것이 그야말로 대박이 되어 일약 깡깡 아줌마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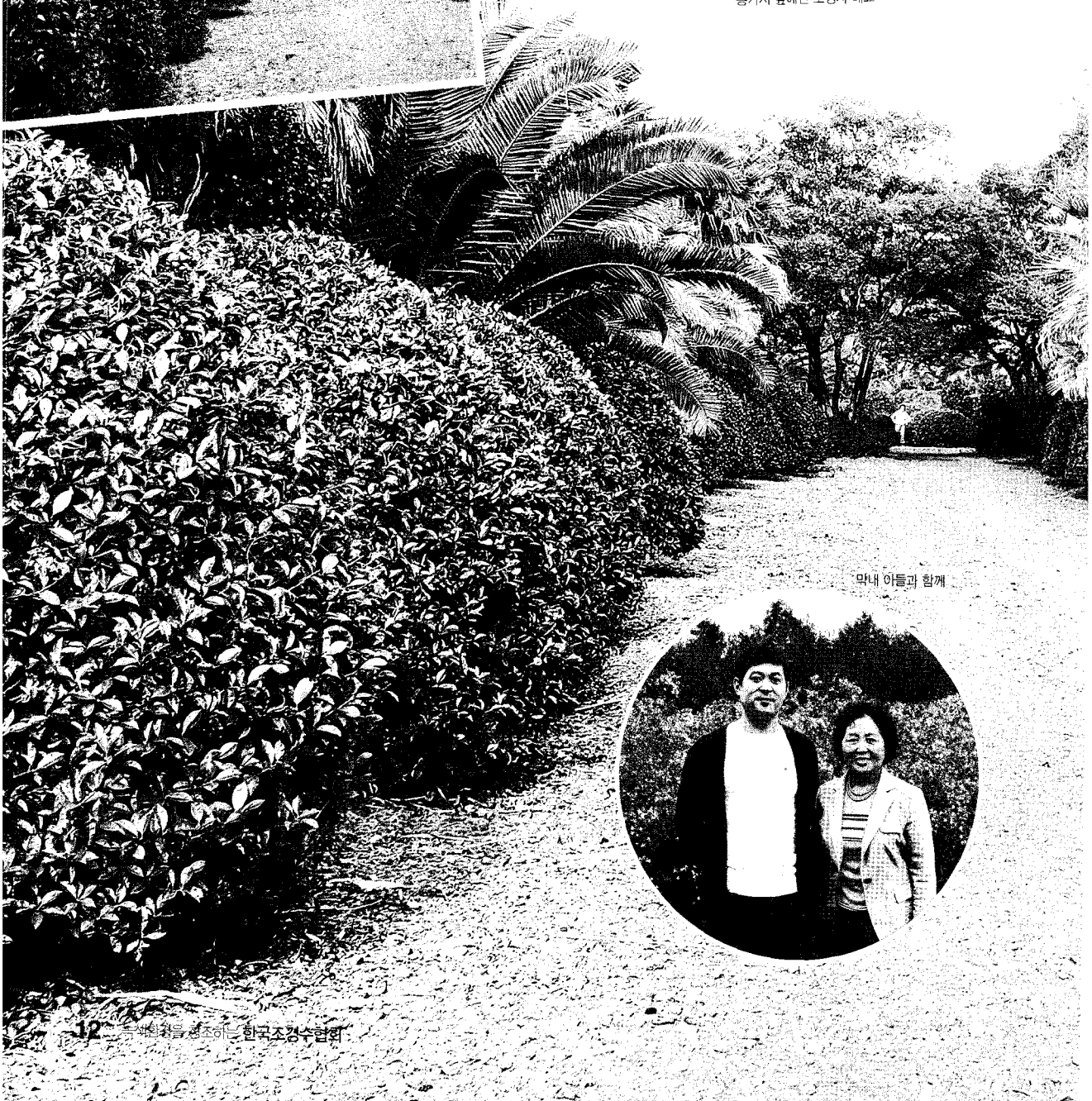
금감의 인기 폭발

우선 일반 꺾처럼 손으로 까먹는 번거로움이 없고 껌질 속에 칼슘과 비타민 C가 풍부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한 입에 쏙먹는 편리함이 더해 처음 알려지자마자 인기가 날로 폭발. 묘목은 묘목대로 10배 이상의 수익을 올렸고, 열매는 열매대로 전량 서울의 백화점 등 고급 상가로만 팔려나가 심지어는 어린 묘목에 달린 한두 알조차 다 수확하는 개가를 올렸으며 그 덕에 1,000여평의 농장과 700평의 하우스를 설치하여 빛깔 곱고 부드러운 최상품의 금감을 생산, 금감(깡깡)보급과 하우스 재배의 효시를 이룬 우리나라 감귤재배의 한 획을 그은 여인이 되었으며 그것이 오늘날 그녀를 조경업에 뛰어들게 한 계기가 되었다.

송하조경 분농장 입구



홍가사 앞에서 오정자 대표



만내 아들과 함께



호기심과 취미로 시작한 조경사업

그녀가 조경수 사업에 뛰어든 것은 순전히 호기심과 취미 활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단다. 온화한 서귀포의 유복한 농가에서 태어나 농사일은 그저 구경만 하였을 뿐 손에 호미자루 한번 쥐어보지 않다가 결혼 후 무료함도 달래고 여가 생활도 즐기기 위해 시작한 것이 어느새 생활 수단이 되고 이름난 조경인이 되었단다. 쾌활하고 활동적인 성격인 그녀는 남다르게 산에 있는 나무는 물론 들이나 집안에 있는 나무만 보면 마음이 뿌듯하고 안정과 평온을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조경수를 보는 타고난 혜안이 있는 것인가 그녀가 선호하고 좋아하여 심어 놓은 나무는 하나같이 조경수로 각광 받아 불티나게 팔려 나가고 그런 재미로 또 다른 나무를 심다보니 어느새 8만평이 되는 큰 농장을 갖게 되었으며 그때마다 새로운 별명을 하나씩 얻게 되었단다.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여러 개

어느 동요 가사처럼 이름은 하나인데 조경수와 관련하여 그녀에게 붙여진 별명은 여러 개나 된단다. 80년대 수입 소 파동으로 경영하던 한우 목장을 그만두게 되어 목장부지 3만평에 홍가시나무와 겹동백 그리고 한접홍매 이렇게 3가지 품종을 주축으로 1986년도에 처음 조경수를 심기 시작한 것이 지금의 송하조경 중심 농장인 상창리 농장이다. 처음 시작하면서 너무 크게 하지 말라는 주위의 만류로 홍가시 1만본과 겹동백과 만첩매화 5천본씩 우선 2,000평만 심어본 것이 겹동백부터 인기리에 팔려 나가기 시작한 이후 어딜 가나 동백 아가씨가 아닌 동백아줌마로 통하리만치 수년간은 일명 사사가 배니동백으로 이름을 날리다 겹동백이 사람들의 선호에서 멀어질 즈음 꽃도 아름답고 열매 또한 인기 많은 만첩 홍매가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가기 시작 하여 동백아줌마에서 매화아줌마로 별명이 바뀌더니 요즘은 홍가시 덕분에 홍여사로 통하고 있다.

고향사랑 제주사랑

그녀의 제주 사랑과 고향 사랑은 각별하다. 누군들 고향에 대한 애착을 갖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마는 그녀의 대화 한마디 한마디가 고향 제주에 대한 애착과 진한 사랑을 느끼게 한다. 우선 제주 사람 특히 제주 여자들에 대하여 온화하고 활발한 성품에다 부지런 하



홍가시 묘포장

고 사치를 모르는 근면 성실함은 육지 사람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제주 여인들의 자랑부터 제주의 역사, 문화, 유래, 전설에서 지역별 기후와 토양과 환경 그리고 지방마다의 생활, 풍습까지 어느 향토 사학자 못지 않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유네스코의 세계자연 유산으로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는 천혜의 자연 환경과 지리적 이점으로 관광, 산업, 물류의 중심지로 급년에는 600만 관광객이지만 앞으로는 매년 1,000만 명이 찾아와 싱가포르나 홍콩보다 더 나은 국제관광산업 도시가 될 것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그래서인가 그녀의 멋진 조경수 농원들은 모두 대로변에 있어 조금이나마 지나는 이들에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한라산 최고봉과 안덕면

그녀가 들려주는 한라산과 백록담, 그리고 산방산에 대한 전설과 자랑이다. 높이 1,950m 남한 최고의 한라산은 난대수종부터 온대, 한대식물까지 1,800여종의 식



중려나무 농장



애란(애란)

물이 분포된 중 다양성의 보고이며 천자만홍, 만산홍엽, 녹담만설의 4계절 멋진 풍광을 자아내는 산으로 그 옛날 흰 시슴을 쫓던 사냥꾼이 활을 너무 높이 들어 옥황상제를 맞춰 화난 옥황상제가 산봉우리를 뽑아 던진 것이 그 자리가 지금의 백록담이고 던져진 봉우리가 산방산으로 그 크기와 형태가 비슷하여 누군가 산방산을 들어다 백록담에 놓으면 아주 딱 들어맞을 것이라한다. 옛날부터 영주 10경의 하나인 산방굴사에서는 산방덕의 눈물이라는 약수물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용머리해안의 기암괴석과 형제섬의 일출 그리고 멀리 마라도가 보이는 해안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그야말로 안덕면의 자랑이라한다.

그녀만의 비결 입지 선정

제주의 대표적인 감귤나무도 지역과 토질과 바람세기에 따라 맛과 빛깔이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잘 아는 그녀는 조경수 재배에 다음 원칙을 꼭 지켰다.

- 첫째 : 습기가 많은 토양일 것.
- 둘째 : 토심이 깊고 돌이 없을 것.
- 셋째 : 바람피해가 없는 곳, 즉 풍충지대가 아닐 것.

이렇게 바람 많고 돌 많은 삼다도, 더구나 온통 화산현무암으로 비가와도 땅 속으로 거의 스며들어 하천다운 하천조차 보기 힘든 제주에서 이런 땅을 구하려니 35군데나 되는 여러 곳에 분산될 수밖에 없었던다. 그 래야만 나무도 제대로 크고 분 뜨기가 용이하여 이식 후 하자 없이 잘 크게 된단다. 무엇보다도 그녀의 농장들은 모두 대로변에만 있다. 그래야만 저녁 늦은 시간

에도 둘러보고 관리하기도 편할 뿐만 아니라 오가는 이들에게 자연 홍보가 될 수 있단다. 이름 없던 홍가시나무도 길옆에 심어 놓은 덕에 많은 이들이 보고 자연스레 알려지게 되어 지금의 인기 상품이 되었단다.

송하조경의 행운목 홍가시나무

이제까지 도로변 수벽용으로 심겨진 어린 홍가시만 보다가 여기 송하조경에 있는 2-3m 높이의 대형 홍가시를 보니 또 다른 매력에 푹 빠진다. 마치 반송이나 조형소나무에 비해 전신주처럼 쪽쪽 자란 대형 장송이 풍기는 풍만한 멋과 운치에 비교된다고나 할까? 전혀 별개의 수종처럼 색다른 느낌이다. 처음 심을 때는 별반 기대도 없이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좋아서 막연히 심어 놓은 것이 지금은 대형목만 4,000본이 넘고 수벽용 어린나무가 1만본 이상이며 1-2년생 어린묘목과 삼목묘가 10만본이 넘는 가히 홍가시 전문 농장이라 할 수 있다. 홍가시는 생긴 모양대로 불꽃처럼 행운이 일어난 것인가, 홍가시를 심고부터 농장도 집안도 자녀들도 다 잘된 것이 모두 홍가시가 가져다준 행운, 그것도 어린 것이 아닌 대형목으로 키운 덕택이라고 생각한다. 도로변 수벽용 어린나무도 아름답지만 대형 홍가시의 매력은 말로 다 할 수 없고 누구나 한두 그루씩 키워보면 그 뜻을 알 것이라 한다. 가시 붉은 잎들이 온 농장에 피어오르고 있어 마치 행운의 열기가 활활 타오르는 듯하다.

이국풍 농원의 알뜰한 토지이용


제주도 특히 서귀포지역에 가면 누구나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아열대 지방 같은 이국적인 풍경일 것이다.

거리의 종려나무나 야자수하며 상록활엽수의 반짝이는 잎들이 먼 나라의 풍경을 맛보듯 이곳 송하조경 역시 싱그러운 야자수와 상록조경수들이 남국의 정취를 한껏 맛보게 한다. 하지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여성 특유의 알뜰한 토지 활용이다. 그녀의 농장에는 빈 공간이 없다. 낙엽지는 먼나무 밑에는 철쭉을, 매화나무 밑에는 팡팡나무를 혼식하였고, 굴취한 빈 공간에는 어김없이 감자나 채소들이 심겨져 있어 토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있다. 그늘지는 큰나무 곁사이에는 요즘 그녀가 가장 아낀다는 잔디를 닦은 관엽식물인 애란(왜란)을 심어 카펫처럼 파랗게 펼쳐진 것이 1,500평이나 되고 꽃치자, 꽃댕강이 가지런히 자라는 사이로 남국풍의 종려와 야자수가 넓은 잎을 드리우는 사이에는 흥가시 삼목들이 빨간 순을 내미는 오밀조밀 잘 가꾸어진 농장이다.

최고의 조경수 최고의 조경인

돌, 바람 많고 물 귀한 척박한 제주에서 좋은 조경수를 생산, 고가에 판매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더구나 여자 몸으로 감당하디에는 너무나도 힘들어 몇 번이고 포기하려던 때가 한두번이 아니란다. 여자이기에 깔보고 멸시 당하기 일쑤고 거래처와 친밀도를 쌓아가는데도 한계가 있어 항상 뒤로 밀리게 되어 오직 최상품의 조경수 생산으로 이겨냈단다. 가까운 친인척조차 남모르게 시기와 방해를 일삼았지만 신앙과 활달한 성품으로 내색 없이 이겨내고 조경수 재배에 문외한이었던 그녀가 조경인으로 성공할 수 있

종려나무와 돈나무 · 동백나무농장

었던 것은 조경수 재배를 시작하자마자 이듬해인 1987년에 우리 조경수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수종 선정, 재배기술, 판매, 유통은 물론 자금 조달까지 모든 것을 협회와 조경수지를 통해 습득하므로 성공할 수 있었기에 8년전부터 분회 이사직을 맡아 지금도 협회 일이라면 누구보다 열과 성의를 다하는 열혈 회원이다. 청소년 선도 교사를 지낸 착실한 신앙인인 그녀는 80노인들도 노는 사람이 없다는 제주여성 특유의 근면과 성실함으로 지금 막내아들에게 후계 지도 중이며 앞으로 힘닿는 날까지 장학사업을 통하여 사회에 공헌하며 한국 최고의 여성 조경인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한다. 



조경수 빈공간에 심어진 감자밭

